

대학생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조절 동기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미옥¹, 김세영², 이미영^{3*}

¹초당대학교 간호학과, ²국립창원대학교 간호학과, ³광주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Autonomy Support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on Learning Outcomes among College Students

Mi-Ok Lee¹, Se-Young Kim², Mi-Young Lee^{3*}

¹Department of Nursing, Chod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자율성 지지, 자기조절 동기와 학습인식 즉 학습성과의 정도와 이들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학습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전남과 대전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자율성 지지는 자기조절동기의 확인적 조절 동기, 내적 조절 동기, 학습인식의 학습결과와 학습과정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조절동기의 외적 조절 동기는 의무조절 동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의무 조절 동기는 확인적 조절동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확인적 조절 동기는 내적조절동기, 학습결과, 학습과정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내적 조절 동기는 학습결과, 학습인식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습결과는 학습인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습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지지, 의무적 조절 동기, 확인적 조절동기가 학습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 지지와 자기결정동기가 대학생의 학습수행을 강화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relations in autonomy support, self-determined motivation, and learning outcomes among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1 college students in Jeonnam Province and Daejeon city, sampled by convenience sampl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perceived autonomy support had a significant direct positive effect on identified and intrinsic motivation. Also perceived autonomy support had a significant direct positive effect on learning outcomes and processes. Second, external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uty motivation and duty motivation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identified duty. In addition to identified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trinsic motivation, learning outcomes and processes. Third, intrinsic motivation had positively influenced on learning outcomes and processes. As the last of the findings, perceived autonomy support, duty motivation and identified motiv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learning outcomes and processes. These results imply that perceived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s important to enhance academic performance.

Keywords : Self-determination theory, Autonomy support, Motivation, Learning outcomes, College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체육교육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기결

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학생의 동기부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1]. 자기결정이론에 의하면 교육에서 학생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Corresponding Author : Mi-Young Lee(Gwangju Univ.)

Tel: +82-62-670-2324 email: mylee@gwangju.ac.kr

Received July 8, 2015

Revised July 27, 2015

Accepted August 6, 2015

Published August 31, 2015

성장과 안녕에 필수적이며[2], 학생이 자율성, 역량, 관계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의 만족과 최선의 학습을 증진시킨다[3]. 이중에서 자율성은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성질이나 특성(표준국어 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으로 대학생의 학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자기결정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율성과 동기가 대학생의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은 거의 없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은 학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의 압력, 강요된 목표나 요구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며, 학습자의 의견을 고려하고 긍정적인 정보와 피드백을 주는 상황을 의미한다[4]. 즉 교사의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는 학생의 독립적인 문제해결을 장려하고, 학생의 행동에 반응하고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5]. 이와 반대로 권위적인 교사는 내재적 또는 명시적 상벌제도와 같은 고압적인 기술을 통해서 지배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기결정이론에 의하면 자율성 지지는 자기조절 동기에 영향을 준다. 자기조절 동기는 부모나 교사의 자율성 지지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자녀나 학생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조절 동기는 외적조절, 의무적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적 조절과 같이 다양한 동기유형으로 구분된다[2]. 선행연구에서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유능감과 독립적인 자기조절이 높아지고, 학교 적응 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자기조절 동기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학습효능감의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6].

국외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학생의 자기조절 동기와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 강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의 교과목 성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4], 대학생이 인식하는 강사의 자율성 지지는 독립적인 자기조절 동기를 높이고, 학습 성과에 영향을 주었다[7]. 국내에서 고등학생의 자율성 인식을 조사한 Sohn과 Bae의 연구[8]에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인지적 학습전략을 통해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에서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수의 자율성 지지와 자기조절 동기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대학생의 학습성취를 측정하는데 학생이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학습인식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10, 11]. 국내에서 대학생의 학습인식과 교육만족도의 관련성을 조사한 Shin과 Min의 연구[12]에서 대학생의 학습인식은 전공계열에 상관없이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의 자율성 지지와 학생의 내적동기에 따른 학습성취를 파악하는데 전공별 특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대학생의 학습과정과 학습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학습인식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율성 지지, 자기조절 동기를 측정하고 학습성과와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습성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인식하는 교수의 자율성 지지, 대학생의 자기조절 동기, 학습 성과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표출에 의해 선정된 전남과 대전에 소재한 2개 대학의 대학생 213명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program에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f=0.30$), 검정력 .95 수준에서 집단별 차이 검정에 필요한 대상자 수 최소 111명을 초과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자율성지지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수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Williams & Deci[13]가 개발한 15문항의 학습

풍토 질문지(The Learning Climate Questionnaire; LCQ)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7점 Likert 척도이며 7점에 가까울수록 자율성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글 번역된 Kim[14]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 Chronbach α 는 .91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0이었다.

2.3.2 자기조절 동기

학생들의 자기조절 동기는 Kim[15]의 한국형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K-SRQ-A)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4가지 하위척도인 외적조절동기(6문항), 의무적 조절 동기(6문항), 확인된 조절 동기(6문항), 내적 조절 동기(6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도구의 신뢰도 α 는 본 연구에서는 .899이었다.

2.3.3 학습성과

Shin과 Min[12]이 개발한 학습인식 측정도구는 학습결과 4개 문항, 학습과정 3개 문항을 합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학습결과 영역은 내용 이해도 증가, 내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 현장적응력 증가, 비판적 판단력 증가를 측정하고, 학습과정 영역은 수업에 대한 준비, 동료와의 협동, 수업참여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hin과 Min[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학습결과 0.78, 학습과정 0.6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15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4.1 자료 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5년 6월 약 한달 간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 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렸으며, 연구보조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평균 10분이 소요되었고, 배부된 설문지 260부 중 245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한 총 231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4.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로 분석하였고,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으며, 학습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이 64.9%로 남학생 35.1%보다 많았다. 평균연령은 19세 이었다. 학년별로 1학년이 64.9%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35.5%, 3학년과 4학년이 9.9%이었다. 종교가 없다가 58.4%로 종교가 있다가 41.6%보다 많았고, 가정 경제에 대한 지각에서는 보통이다가 78.8%로 가장 많았고 어려운 편이다 16.0%, 넉넉한 편이다 5.2%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00%이었다(Table 1).

3.2 자율성지지, 자기조절 동기, 학습인식 수준

자율성지지는 평균 4.60 ± 0.89 로 중간점수인 3.5점보다 높았다. 자기 조절 동기는 확인된 조절 동기 4.19 ± 0.89 , 의무조절 동기 3.79 ± 0.91 , 내적조절동기 3.02 ± 1.04 , 외적조절 동기 2.39 ± 0.85 의 순이었으며 6점 만점기준으로 확인된 조절동기, 의무 조절 동기,

Table 1. Demographic statistics of the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81	35.1
	Female	150	64.9
Age	<20	149	64.5
	≥ 20	82	35.5
Grade	1st	150	64.9
	2nd	58	25.9
	3rd	4	1.7
	4th	19	8.2
	have	96	41.6
Religion	do not	135	58.4
	have		
Economic state	low	37	16.0
	middle	182	78.8
	high	12	5.2
Marital status	No	231	100.0
	Yes	0	0.0
Total	231	100	

내적조절동기가 중간점수보다 높았다. 학습인지는 학

Table 2. Levels of autonomy support, self-motivation, and perception of learning

Variables	Sub-categories	Range	Min-Max	Mean±SD
Autonomy support		1-7	2.00-7.00	4.60±0.89
Self-control motive	Extrinsic motive	1-6	1.00-5.00	2.39±0.85
	duty motive	1-6	1.00-5.00	3.79±0.91
	Identified motive	1-6	1.00-6.00	4.19±0.89
	Intrinsic motive	1-6	1.00-6.00	3.02±1.04
Perception of learning	Learning outcomes	1-5	1.50-5.00	3.61±0.65
	Learning process	1-5	1.00-5.00	3.50±0.71

Table 3. Differences of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utonomy support		Self control motivation		Perception of learning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4.76±.943	4.264 (=.040)	3.24±.741	3.501 (=.063)	3.62±.618	1.281 (.259)
	Female	4.50±.852		3.42±.672		3.53±.567	
Age (yrs)	<20	4.56±.816	.911 (=.341)	3.38±.656	.726 (=.395)	3.62±.569	4.157 (=.043)
	≥20	4.67±1.015		3.02±.776		3.54±.620	
Religion	No	4.57±.862	242 (=.623)	3.33±.705	.337 (.562)	3.52±.585	1.937 (.165)
	Yes	4.63±.934		3.39±.696		3.63±.598	
Economic state	low	4.50±.963	.251(=.778)	3.14±.715	2.730 (=.670)	3.37±.756	2.431 (=.090)
	middle	4.61±.890		3.38±.690		3.59±.556	
	high	4.63±.891		3.62±.721		3.678±.552	

Table 4. Correlations of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7
	r(p)	r(p)	r(p)	r(p)	r(p)	r(p)	r(p)
1. Autonomy support	1						
Motive	2. External	.045(=.500)	1				
	3. Duty	.178(.007)	.477(<.001)	1			
	4. Identified	.382(<.001)	.093(.160)	.436(<.001)	1		
	5. Intrinsic	.259(<.001)	-.174(.008)	.418(<.001)	.599(<.001)	1	
Percepti on	6. Outcome	.441(<.001)	-.068(.305)	.167(.011)	.507(<.001)	.319(<.001)	1
	7. Process	.295(<.001)	-.095(.152)	.088(.180)	.265(<.001)	.208(<.001)	.521(<.001)

습결과 3.61±0.65, 학습과정 3.50±0.71이었고 5점 만점 기준에서 중간점수보다 높았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율성지지, 자기 조절 동기 및 학습인식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율성지지와 자기조절동기, 학습인식의 차이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은 연령($p=.043$), 학년($p=.002$)이었다(Table 3).

3.4 자율성지지, 자기조절 동기, 학습인식 요인 간의 상관관계

자율성지지와 자기조절동기, 학습인식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자율성 지지는 자기조절동기의 확인적 조절 동기($r=.382, p<.001$), 내적 조절 동기($r=.259, p<.001$)와 학습인식의 학습결과($r=.441, p<.001$)와 학습과정($r=.295, p<.001$)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조절동기의 외적조절동기는 의무조절 동기($r=.477, p<.001$)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의무조절동기는 확인적 조절동기($r=.418, p<.001$)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확인적 조절동기는 내적조절동기($r=.599, p<.001$), 학습결과($r=.507, p<.001$), 학습과정($r=.265, p<.001$)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조절동기 중 내

적 조절동기는 학습인식의 학습결과($r=.319, p<.001$), 학습인식($r=.208, p<.0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습인식의 학습결과와 학습과정($r=.521, p<.001$)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3.5 학습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상자의 학습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IF)는 1.009~1.179로 10이하이고 공차(Tolerance)가 .854~.991로 1에 가까워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학습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율성지지($t=5.004, p<.001$), 의무적 조절동기($t=-2.472, p=.014$), 확인적 조절동기($t=4.161, p<.001$)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R^2=.20, F=31.70, p<.001$ 이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in perception of learning of the participants

Factors	B	S.E	β	t	p
Constant	1.890	.212		8.922	<.001
Autonomy support	.199	.040	.300	5.004	<.001
Motivational	-.095	.039	-.138	-2.472	.014
Identified	.209	.050	.315	4.161	<.001
Adjusted $R^2=.20, F=31.70,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지각된 교수의 자율성 지지, 자기조절 동기와 학습 성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대학생의 학습 성과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여 대학생의 학습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가 지각한 교수의 자율성 지지는 7점 만점에서 평균 4.60±0.89로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16, 17]. 그러나 사이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g과 Lee의 연구[18]의 5.37±1.13보다 낮았는데 이는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과 달리 사이버대학의 특이한 상황이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기회를 더 많이 주게 되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14]의 3.64±1.08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년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과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의 지각된 자율성 지지는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지각된 자율성 지지가 높았으며, 3학년 학생이 지각한 교수의 자율성 지지가 4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교육의 특성상 수능을 목표로 틀에 박힌 학교 환경에서 대학에 진학해서 느끼는 해방감이 자율성 지지에 영향을 주어 1학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지지 점수나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4학년의 경우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자율성 등 심리적 욕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율성 지지의 지각 점수가 3학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 동기는 6점 만점기준으로 확인된 조절 동기 4.19±0.89, 의무조절 동기 3.79±0.91, 내적 조절동기 3.02±1.04, 외적조절 동기 2.39±0.85의 순으로 나타나 선행연구[14, 15]의 결과를 지지한다. 즉,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확인/통합된 원인이었고, 가장 낮은 것은 외적 원인과 내재적 원인이었다. 확인/통합된 조절은 내재적인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과제 자체에 대한 고요한 관심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만족, 즐거움, 재미 등을 추구하기 위해 학습하는 내적 조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생의 학습성취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학습인식은 5점 척도로 학습결과 3.61±0.65, 학습과정 3.50±0.71으로 Shin과 Min[12]의 연구에서 확인한 학습결과 3.22점과 학습과정 2.9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인식 정도는 연령과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습에 대한 태도와 준비가 더 나아지고 그에 따라 학습인식 점수가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4학년 때 학습인식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취업 등 진로 결정을 앞두고 학업이 과중되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교수의 자율성 지지는 자기조절 동기의 확인적 조절 동기, 내적 조절 동기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선행 연구[8, 16, 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대학생들이 자율성을 지지받겠다고 지각할 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 심리적 욕구에 만족하게 되고[19, 20] 이는 내적 조절 동기에 기여한다[21, 22]. 또한 자율성지지 정도는 학습인식의 학습결과와 학습과정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율성 지지와 학업성취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Sohn과 Bae[8]의 연구와 Kim과 Kim[2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대학 이리닝에서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학습성과 간의 관계를 연구한 Chen과 Jung[24]의 연구 결과에서 지각된 자율성 지지는 만족도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한국 대학생은 교수자가 자신들의 자율성을 지지해준다고 지각할 때 학업적 자율성과 학업적 유능감에 대한 지각이 증진되면서 자기결정성 학습동기가 강화되어 학습참여가 심화되고[25], 또한 수업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겠다[26]. 따라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맥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자기조절 동기가 실질적으로 학업성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교수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학습성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자율성지지, 의무적 조절 동기 및 확인적 조절동기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Im[27]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자율성 지지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 목표 지향성 유형과 기본 심리욕구 만족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Lee[28]의 연구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즉, 지각된 교수의 자율성 지지는 대학생의 자기조절 동기를 통해 인지적 학습 전략에 영향을 주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업성파를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Furrer과 Skinner[29]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은 교사가 신뢰롭고,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습동기와 학업성파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관계성 욕구의 충족시킬 수 있는 맥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스포츠와 체육 분야의 연구[30, 31]에서 널리 활용되었던 동기이론 중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교수의 자율성지지, 자기조절 동기 및 학습성과 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변수 간 상호관련성이 밀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학습성파는 타인의 권유나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참여하는 학습 환경이 아닌 자기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학습에 참여할 때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의 내면화를 도울 뿐 아니라 수업구성에 학습자의 흥미를 강화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적절한 교수·학습 촉진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한 연구로, 대학생의 지각된 교수의 자율성 지지, 자기조절 동기와 학습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4일에서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SPSS 21.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자율성 지지, 자기조절동기 및 학습인식의 학습결과와 학습과정 간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성파에는 자율성지지, 의무적 조절 동기 및 확인적 조절동기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해 자율성 지지 행동에 따라 학습자가 지닌 동기는 학습자의 내면화를 통해 자기결정성이 더 높은 동기로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는 대학생이 자율성 지지를 지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자기조절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습성파의 향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남과 대전에 위치한 특정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유의가 필요하며, 보다 다양한 지역의 균형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성과 변인으로 자율성 지지, 자기조절 동기를 사용하였으나 몰입, 지속의향, 참여도, 심리적 안녕감 등 다양한 학습성과 변수들을 적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자기결정성 유형별로 여러 학습성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추측되므로 자기결정성 동기유형을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로 다양한 학습성과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대학생의 학습성파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후속연구에 대

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B. Shen, N. McCaughtry, J. Martin, M. Fahlman. Effects of teacher autonomy support and students' autonomous motivation on learning in physical educatio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0(1), pp. 44 - 53, 2009.
DOI: <http://dx.doi.org/10.1080/02701367.2009.10599528>
- [2] E. L. Deci, R. M. Ryan.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pp. 227 - 268, 2000.
DOI: http://dx.doi.org/10.1207/S15327965PL11104_01
- [3] J. Reeve, E. Bolt, Y. Cai. Autonomy-supportive teachers: How they teach and motivat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 pp. 537 - 548, 1999.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91.3.537>
- [4] R. M. Ryan, E.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pp. 68 - 78, 2000.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5.1.68>
- [5] W. S. Grolnick, R. M. Ryan.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 pp. 143-154, 1989.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81.2.143>
- [6] A. H. Kim, J. E. Cha, D. S. Lee, I. H. Lim, H. Y. Tack, Y. N. Song. Influence of parents' autonomy support on elementary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efficac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5(4), pp. 3-24, 2008.
- [7] A. E. Black, E. L. Deci. The effects of instructors' autonomy support and students' autonomous motivation on learning organic chemistry: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Science Education*, 84(6), pp. 740 - 756, 2000.
DOI: [http://dx.doi.org/10.1002/1098-237X\(200011\)84:6<740::AID-SCE4>3.0.CO;2-3](http://dx.doi.org/10.1002/1098-237X(200011)84:6<740::AID-SCE4>3.0.CO;2-3)
- [8] W. S. Sohn, J. H. Bae. Relationships of mothers' versus teachers' autonomy support with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9(3), pp. 253-272, 2014.
- [9] J. Y. Lee, J. H. Ha, S. H. Jeon. The effects of parents' interacting modes in achievement settings on adolescents' expectancy for future succes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role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20(4), pp. 873-890, 2006.
- [10] P. D. Umbach, S. R. Porter. How do academic departments impact student satisfaction?: Understanding the contextual effects of department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3(2), pp. 209-234, 2002.
DOI: <http://dx.doi.org/10.1023/A:1014471708162>
- [11] C. G. Sohn, Y. T. Kim.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result to variables related to students' evaluation of teaching in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0(2), pp. 1-24, 2007.
- [12] H. J. Shin, H. R. Min. Effects of students' maj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earning experiences and course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7(3), pp. 49-72, 2009.
- [13] G. C. Williams, E. L. Deci. Internalization of biopsychological value by medical students: A test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pp. 767-779,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4.767>
- [14] H. K. Kim. *The effects of teachers' autonomy support on self-regulatory motiv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thesis]. Incheon: University of Incheon. pp. 1-57, 2009.
- [15] A. Y. Kim. Validation of taxonomy of academic motivation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pp. 169-187, 2002.
- [16] J. G. Park.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dance teachers' autonomy support, learning orientations, intrinsic regulations, and intention for clas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9(4), pp. 373-385, 2010.
- [17] B. H. Park. Verification of relational model of autonomy support, psychological needs, self-regulative motivation and consequences in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7(4), pp. 127-149, 2013.
DOI: <http://dx.doi.org/10.13066/kspe.2013.8.1.127>
- [18] J. S. Chung, J. H. Lee. Path analysis among perceived autonomy support,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in a cyber univers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8(3), pp. 365-387, 2012.
- [19] N. Ntoumanis. A prospective study of participation in

- optional school physical education us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framework.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 pp. 444 - 453, 2005.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97.3.444>
- [20] M. Standage, J. L. Duda, N. Ntoumanis. A model of contextual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Using constructs from self-determination and achievement goal theories to predict physical activity inten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 pp. 97 - 110, 2003.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95.1.97>
- [21] Y. J. Oh, Y. Jin.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autonomy support from teacher and peers and intrinsic motivation in danc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3(2), pp. 87-101, 2012.
- [22] D. H. Ahn. Influences of adolescents' beliefs regarding intelligence, and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on their perceived competence. *Studies on Korean Youth*, 24(1), pp. 103-126, 2013.
- [23] J. Y. Kim, A. Y. Kim. Teachers' conditional regard, autonomy support, and elementary students' self-determined motivation as predictors of academic engagement and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8(2), pp. 251-268, 2014.
- [24] K. C. Chen, S. G. Jang. Motivation in online learning: Testing a model of self-determination theor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4), pp. 741-752, 2010.
DOI: <http://dx.doi.org/10.1016/j.chb.2010.01.011>
- [25] J. W. You, M. H. Ka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factor, psychological need factor, and motivational factor for enhancing learning engag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9(4), pp. 55-85, 2011.
- [26] I. S. Kim. Influence of teachers' autonomy support, motivational climate, athletic values, self-determined motivation to satisfaction of physical education clas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11(1), pp. 47-61, 2011.
- [27] J. H. Im. *The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motiv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between perceived autonomy support and the student achievement of the learning*[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4.
- [28] S. W.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goal orientati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1(1), pp. 45-68, 2010.
- [29] C. Furrer, E. Skinner.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pp. 148-162, 2003.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95.1.148>
- [30] H. S. Cho. The effect of teachers' autonomy support environment in physical education on students' help-seeking behaviors and class participation attitud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0(6), pp. 273-284, 2011.
- [31] S. H. Cheon, I. S. Moon. Implementing as autonomy-supportive fitness program to facilitate students' autonomy and engagement.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1(1), pp. 175-195, 2010.

이 미 옥(Mi-Ok Lee)

[정회원]



- 2003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정신간호학박사)
- 2008년 9월 ~ 2010년 8월 : 우석대학교 여성건강간호학교수
- 2010년 10월 ~ 현재 : 초당대학교 정신간호학/간호관리학/의사소통학 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여성건강, 간호관리, 응급재해, 의사소통론

김 세 영(Se-Young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2013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4년 4월 ~ 현재 : 국립창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Leadership, Performance, Education

이 미 영(Mi-Young Lee)

[정회원]



- 1994년 7월 : University of Sydney (M.B.A)
- 2011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9월 ~ 2012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2014년 9월 ~ 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리더십, 교육, 생명윤리